

제주~인천 바닷길 복원 2년째 '안갯속'

항로 재개 타당성·경제성 조사 두 차례 유찰 용역 결과 따라 화물선 투입 방안 재검토 예정 재공고 시점 불투명... 해상 공백 장기화 우려

제주와 인천을 잇는 하늘길이 이르면 5월 재개될 전망이다. 정작 바닷길 복원은 2년 넘게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항로 재개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 잇따라 유찰된 데다 재공고 일정마저 잡히지 않으면서 지연이 장기화되는 모양새다. 22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공사가 지난해 말 진행된 '인천~제주 항로 재개 타당성 및 경제성 조사 용역' 입찰은 두 차례 유찰된 이후

현재까지 재공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사는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입찰 공고를 냈으나, 적격 업체를 찾지 못해 모두 무산됐다. 이후 과업 내용 조정과 공고 방식 변경을 위해 내부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구체적인 재공고 시점은 불투명하다. 이번 용역은 단순한 여객선 취항을 넘어 항로 전반의 경제성을 검

토하기 위한 절차다. 특히 앞서 두 차례 무산된 화물선 선사 공모 역시 이번 용역 결과에 따라 향후 방향이 결정될 예정이어서, 용역 지연은 항로 복원 전반의 지체로 이어지고 있다. 제주~인천 항로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중단됐다가 2021년 비온드트리스트호 취항으로 7년 만에 복원된 바 있다. 그러나 잦은 고장과 선사의 경영난이 겹치면서 2024년 1월 면허가 반납됐고, 현재까지 끊긴 상태다. 공사는 2024년 화물선을 우선 투입하고 향후 카페리 운항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나타나면 화물선 운항

을 중단하고 여객선을 띄우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를 위해 선사 공모를 진행했으나 참여 업체를 확보하지 못했고, 이후 운항 가능 선박 범위를 확대해 재공고에 나섰음에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항로 공백이 길어지면서 제주와 수도권을 오가는 화물은 목포 등을 경유해 육상으로 운송되는 등 물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현재 과업 내용 조정 등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절차를 재개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재현기자

폐교 신도초 활용 계획 놓고 '설전'

도교육청, 신도초 활용해 '통합 서고' 조성 계획 20일 도의회 교육위 회의서 의견수렴 부족 지적

제주도내 폐교 중 한 곳인 신도초등학교를 '통합 서고'로 활용하려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계획을 두고 지역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개최한 제447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양병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문제를 거론하며 "지역구 의원을 목살해서 추진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양 의원의 지역구는 신도초등학교가 있는 서귀포시 대정읍이다. 제주도교육청은 1998년 문을 닫은 신도초를 활용해 '통합 서고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 예산에 신도초 리모델링 설계비(4900만원)를 반영해 왔다. 신도초 7개 교실(건물면적 약 1059㎡)을 모두 활용해 30년 이상 된 기록물을 한 데 보관하기 위해서다. 현재 사용되지 않는 폐교 공간을 활용하면 서고 조성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도교육청은 보고 있다. 하지만 이날 교육위원회 회의에

선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양병우 의원은 신도리 일부 주민에 한해 의견수렴이 이뤄졌다며 관련 계획의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양 의원은 "몇 년 동안 우리가 거기(신도초)를 이렇게 활용하자 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그런데 교실 한두 개도 아니고, 교육청 거니가 몽땅 써야겠다고 일방적으로 나가는 부분은 동의하지 못한다"고 했다. 정이은 교육의원(서귀포시 서부)도 지역구 의원 등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가 없었던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 의원은 "그 많은 교실을 전부 서고로 활용할 게 아니라 지역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답변에 나선 한봉순 도교육청 행정국장장은 "아직 설계를 한 것도 아니고 이제 논의되는 부분"이라며 "(내부 공간) 실별 사용 운영 계획에 대해선 차후에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제주외국어학습센터 등 5곳 '실물환경 체험학습실' 개방

제주시 전농로에 있는 제주외국어학습센터의 '실물환경 체험학습실'이 내달부터 개방된다. 공항과 병원, 호텔, 식당 등 실제 생활 공간을 그대로 재현한 공간이다.

제주국제교육원은 제주외국어학습센터를 비롯해 동부·서부·서귀포·신제주 등 도내 4개 권역 외국문화학습관의 실물환경 체험학습실을 자유 관람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체험학습실에선 실생활 속 공간에 맞는 시설, 소품 등이 준비돼 있어 상황별 역할 놀이와 체험 활동이 가능하다. 도내 어린이집, 유치원은 물론 일반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둔다.

자유 관람 시간은 학습관별로 다르게 운영된다. 제주외국어학습센터와 동부·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 등 3곳은 매주 수요일 오전 시간대로 계획하고 있다. 나머지 학습관은 조만간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자유 관람을 원하면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제주국제교육원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회차별 이용 인원은 20명 내외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양파 수확하는 농민들 22일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한 농경지에서 농민들이 양파 수확 작업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전국제전 메달 '국민 손으로'... 사상 첫 공모

도, 5월 1~15일 사이 접수 총 10점 선정·상금도 수여

전국제전 역사상 처음으로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메달 디자인이 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작품 접수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인 또는 팀 단위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원형 테두리를 기본 형태로 제주 이미지와 전국제전 상징물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면 된다. 접수는 전국제전 공식 누리집 또는 담당자 전자우편(eunjeong33@korea.kr)을 통해 가능하다. 접수된 작품은 주제 적합성, 창의성, 디자인 완성도, 활용성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

되며, 결과는 6월 초 공식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제주도지사상과 함께 상금이 수여된다. 대상 400만원, 최우수상 200만원, 우수상 100만원, 장려상 50만원 등 총 10점이 선정된다. 선정된 작품은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공식 메달 디자인으로 활용되며, 이번 대회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대체불가토큰(NFT) 기반 메달 디자인과도 연계해 활용될 예정이다. 김재현기자 hakch@ihalla.com

제주 대학지원체계 사업 도민 의견 수렴

27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 조사를 오는 27일까지 구글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의견 수렴은 제주 라이즈 기본계획(2025~2029)을 재구조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1차 연도 사업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진행된다. 설문 문항은 제주 라이즈 사업에 대한 인지도, 참여 경험, 지역사회와 대학 간 연계 기여도에 대한 인식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5개 프로젝트 중 중점 분야와 1차 연도 사업 평가, 2차 연도 기본계획

재구조화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주도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31일까지 실무협의체(워킹그룹)를 운영해 제주 라이즈 기본계획 수정안을 마련한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엉 사랑으로

관광사업체 컨설팅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사업

컨설팅 참여 관광사업체 모집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서는 도내 관광사업체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전문 컨설팅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도내 관광사업체 종사자분들은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대상 : 도내 관광사업체(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지원분야 : 경영 / 인사, 노무 / 세무, 회계 / 브랜딩 개발 / 온라인마케팅+AI 컨설팅(*전액 무료)
- 접수기간 : 2026. 3. 18.(수) ~ 2026. 3. 31.(화)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064-741-8747

※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홈페이지 (www.visitjeju.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